

## “ 소중한 우리 일터를 누가 망가뜨렸나요 ”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 총고용 보장 결의대회...자본은 159명 해고예보통지서로 대응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1월 30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함께 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글로벌 지엠의 부실경영으로 판매가 부진하고

생산물량이 축소되는 가운데 한국지엠은 12월 4일부터 비정규직 작업라인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기 시작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지엠의 다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정리하고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확고한 의지이다. 전 조합원이 총고용 보장 투쟁에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한국지엠은 물량이 없어 해고한다고 한다. 물량이 없는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물량감소, 정년퇴직 등으로 정규직 노동자들도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리하고 다음에 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하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회를 마친 한국

원인이 우리 노동자 잘못 때문인가. 문제를 만든 주범은 지엠 자본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김일권 조합원도 발언에 나서 “딸아이가 중학교 입학하는 3년 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 딸아이가 졸업반이다. 아버지는 오늘 인소싱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자”라고 외쳤다.

인천 KD센터에서 일하는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이용채 조합원은 “원청과 하청업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흘린 피땀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라며 한국지엠 모든 비정규직 현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공연에 이어 마지막 발언에 나선

지엠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인소싱 반대, 비정규직 해고 중단, 총고용 보장’을 외치며 부평공장 안으로 들어가 본관까지 행진했다. 본관 사장실 앞까지 진입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 인천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와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정문을 출발하여 남문을 거쳐 서문까지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조합원들은 해고예고 통지서를 ‘노조파괴 꺼져’ ‘물량축소 NO’ 등을 쓴 허수아비와 함께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리해고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이던 시각에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86명, 부평공장 73명 등 159명의 노동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 “ 귀국 비행기는 예약하지 않았다 ”

1일, 쌍용자동차지부 인도 원정투쟁 떠나.. “해고자 130명과 가족을 대표해 온 힘 다할 것”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윤충렬 수석부지부장, 김재환 조합원이 12월 1일 저녁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시로 떠났다. 김득중 지부장은 “귀국 비행기는 예약하지 않았다. 어려운 결정인 만큼 끝장을 보고 오겠다. 한국에서 함께 싸워 달라”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장으로 돌아가고 130명은 아직 밖에 있다. 사측의 막말에 맞서 할 수 있는 투쟁이 없었다”라며 “해고자 130명을 대표해 가는 투쟁이라 마음과 어깨는 무겁다. 가족들의 절박함이 함께 있어 온 힘을 다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바라는 노동, 시민, 사회, 종교계 대표들은 12월 1일 민주노총에서 ‘쌍용자동차지부 인도원정 기자회견’을 열어 “마힌드라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오늘 아침 공장 안 동료들에게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투자 문제 등을 마힌드라그룹 회장과 담판을 짓고 온다고 알렸다. 지지와 투

쟁기금을 모아주고, 1인 시위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인도 원정투쟁을 바라보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9년째 싸움이다. 자본은 5년 5개월 만에 마힌드라 회장이 방문하면서 쌍용차지부를 교섭 상대로 인정했고, 7년 만에 노노사 합의를 했다. 2년 동안 합의 이행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라고 투쟁을 상기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복직 대상자 22%만

노조 쌍용차지부 원정투쟁단은 뭄바이 도착 후 열흘 동안 인도 노동조합·단체 면담, 기자회견 등 여론 활동을 하고, 이후 마힌드라그룹이 면담에 나오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가동해 투쟁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9년의 투쟁에 마음이 아프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돌아보겠다”라며 “노조는 12월 4일 대의원대회 이후 상황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을 파견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

## “ 굴뚝 위 동지들 힘내라. 우리가 함께 한다 ”

파인텍지회 75미터 농성 19일째, 승리 결의대회... “돌아갈 공장이 사라져 하늘에 올랐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1월 30일 서울 목동 스타플렉스 본사 앞에서 ‘ 파인텍지회 75미터 굴뚝농성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를 열고 ‘ 2015년 노사합의 이행’ 을 강력 촉구했다.

11월 30일은 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박준호 두 조합원이 2015년 노사가 합의한 ‘ 고용 보장, 노동조합·단체협약’ 승계 등의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농성을 시작

한지 19일째다. 지금까지 사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차광호 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장은 결의대회 참가 조합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 우리는 돌아갈 공장이 사라져 다시 굴뚝에 올랐다” 라며 “ 저 굴뚝 위의 동지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모두가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 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 충남지부 조합

원들은 목동 열병합발전소 앞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75미터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홍기탁, 박준호 두 조합원을 응원했다. 조합원들이 응원하는 함성에 두 조합원은 핸드폰 불빛을 흔들며 화답했다.

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 민주노총 5대 요구 실현, 노동법 개정’ 농성을 이어갔다.